

## 관광지 수명주기 연구

- 1962 ~ 2009년간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Destination Life Cycle

- Focused on Jeju between the Period of 1962 and 2009 -

송재호\* · 김영표\*\*

Jaeho Song · Youngpyo Kim

### ABSTRACT

The attempts on the modeling developmental processes of destinations have been constantly studied by the field of tourism and there have been attempts to overcome weaknesses of the existing destination life cycle especially through applying various destination life cycle theories. Destination Life Cycle(DLC) is the theoretical concept that the tourist destination has experienced the life cycle with the birth, growth and death as if it were an organ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stination life cycle of Jeju ; for this purpose, the study model was designed through theoretical study and the process was estimated through verification. The analysing method applied to the verification of the study models is the Logistic Curve Model adopted by Lundtorp and Wanhill. However, some problems were found out if the estimated values and actual values are compared from the study model. Therefore based on the analysis of verification results, revision model was researched. It is possible to explain the current condition.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observe that destination life cycle of Jeju for 48 years from 1962 to 2009 can be divided into first period is considered to be from the year of 1962 to 1998 and the second period is considered to be from the year of 1999 to the present.

**Key words :** Destination life cycle, Resort development spectrum, Revision model,  
First period, Second period.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aaa2000@jejunu.ac.kr)

\*\* 창의연구소 책임연구원(dynat2@hanmail.net)

## I. 서 론

관광지 발전과정을 모델화 하는 연구들은 관광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으며, Butler의 진화론적 관광지 수명주기 모델이 관광지 발전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개념 틀로 수용되어 왔다(Buhalis, 2000). Benedetto(1993), Cooper(1989), Douglas(1997), Oppermann(1995), Tooman(1997), Prideaux(2000) 등 많은 연구자들이 Butler모델의 검증에 통해 관광지 수명주기 모델의 이론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Butler 관광지 수명주기의 보편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관광상품의 공급-발생 모델로서 수요이론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 한계는 수용하더라도, 관광지 발전단계를 설명하는 능력에 대한 회의(Bianchi, 1994; Choy, 1992; Prosser, 1995), 관광지를 제품과 동일시한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Hart et al. 1984), 관광지 수용능력 개념의 한계(Haywood, 1986; Getz, 1992), 관광지 수명주기 개념의 경험적 입증한계(Choy, 1992), 관광지 수명주기 곡선의 형태와 변곡점 결정의 문제(Choy, 1992), 관광지 수명주기 개념 적용의 과제(Agarwal, 1994) 등 적지않은 논리적 약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 이후에는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을 수학적 검증을 통해 보완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Lundtorp and Wanhill(2001)은 관광지 수명주기 형성단계와 진화과정을 추정함으로써 Butler의 관광지 발전단계 이론의 객관성을 검증하였고, Prideaux(2000)는 관광지 수명주기를 수요와 공급의 점점들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단계로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밝혀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반세기 이상 관광지 개발을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격절된 공간으로서 외부개입 변수가 적어 연구의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주도를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하여(송재호 외 2인, 2004),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해보고 그 과정에서 대두되는 이론과 현실의 갭, 즉 연구모델의 논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관광지 발전모델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을 연구의 기반모델로 하되 Lundtorp and Wanhill(2001)의 새로운 관광지 수명주기 추정방식과 Prideaux(2000)의 리조트 발전 스펙트럼 모델을 통합적으로 차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관광지 수명주기(DLC) 선행연구

관광지 수명주기(DLC: Destination Life Cycle) 이론은 관광지를 하나의 유기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생성과 소멸의 일정한 주기를 전제로 한 이론이다.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의 관광지 수명주기이론의 출발점은 공간 자체의 변화와 발전과정으로서의 관광지역을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의 선구자인 Butler(1980)는 관광객 수의 S-Curve유형으로 나타나는 관광지 수명주기를 제안하였으며, 관광지의 진화과정에 따라 탐색(Exploration), 개입(Involvement), 발전(Development), 강화(Consolidation), 정체(Stagnation), 쇠퇴(Decline) 등 6단계로 발전하는 수명주기 가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정체단계 뒤 항상 쇠퇴단계가 오는 것은 아니며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회생(Rejuvenation)단계가 올 수도 있으며 회생과 쇠퇴 사이에 다양한 중간형태가 있을 수 있다.

탐색단계는 시기적으로 본격적인 관광지로 개발되기 이전의 단계이며, 개입단계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가 관광산업 및 관광정책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단계로 관광지로 활성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발전단계는 관광활동이 활발해져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관광시설이 확대되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관광지로서 활성화가 된 시기를 말한다. 관광지로의 발전역사가 길지 않은 관광지에서는 발전단계와 강화단계가 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박양춘·최정수, 2002; Cooper and Jackson, 1989; Crompton and Hensarling, 1987). 강화단계는 성장이 둔화되는 단계로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는 시기이다. 정체단계는 학자들에 따라 정의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나, 사회적 요인에 의해 관광객 수가 절정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한다. 쇠퇴단계는 관광객의 유인요인이 소멸함으로써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관광지가 관광기능을 상실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관광지가 지닌 한계 수명주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추가적인 관광지 관리 시책을 통해 관광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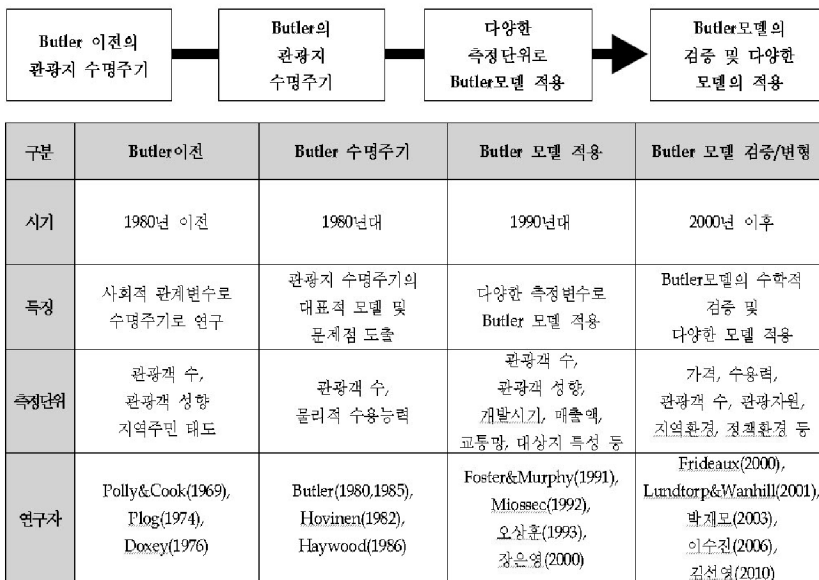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이 Butler(1980)에 의해 체계화 된 이후 현재까지 이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Cooper and Jackson, 1989; Crompton and Hensarling, 1987; Getz, 1992; Hovinen, 1982; Meyer-Arendt, 1985; Oppermann, 1995).

Meyer-Arendt(1985)는 Butler(1980)의 개념적 모델을 토대로 인구성장을 지표로 하여 1810년부터 1980년까지 그랜드 십이 개척단계, 수용단계, 관광지로서 개발 초창기, 도약기, 강화 단계가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Hovinen(1981)과 Meyer-Arendt(1985)는 관광지 '선호 정도의 등락'으로 수명 주기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Haywood(1986)와 Benedetto(1993)는 수명주기이론을 성장 모델구조로 확장하였다. Johnston(2001)과 같은 연구자들은 관광지 수명주기를 존재론적·인식론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관광지 수명주기에 대한 국내연구는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에 대한 Haywood(1986)의 비판을 소개(김규현, 1990; 유승돈, 1987)하거나 제주, 수안보, 서울대공원, 남이섬과 같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지 수명주기를 적용(오상훈, 1992; 김사영, 1993; 이경자, 1998; 이영희, 2000, 장은영, 2000)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1]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의 진화과정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2. 관광지 수명주기(DLC) 모델의 발전

1980년 이후 Butler(1980)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은 많은 연구주제와 분야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의 연구를 적용하거나 검증하는 차원에 머물렀을 뿐 발전적인 후속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Lundtorp and Wanhill(2001)의 연구는 관광지 수명주기(DLC)를 수학적으로 검증하고 관광객 성장패턴의 시간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관광지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추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Lundtorp and Wanhill(2001)이 제시하는 관광지 수명주기모델은 각 발전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도함수를 이용하였으며, 곡선의 변곡점을 추정하여 관광지발전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간  $t$ 일 때 잠재시장  $M$ 내의  $M_t$  사람은 관광목적지  $D$ 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방문함으로써 시간  $t$ 를 기준으로 관광지의 실제 시장이 성립하게 된다.  $h$ 를 관광목적지  $D$ 의 인식이 확장되는 속도라고 가정한다면  $D$ 에 관한 정보는  $dt$  동안  $M_t \times h \times dt$  만큼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전체 잠재시장의 단지 부분일 뿐이므로, 관광지  $D$ 에 대한 정보를 듣거나 방문할 사람이  $M - M_t$ 만큼 더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D$ 에 관해서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몫을  $(M - M_t)/M$ 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시간  $dt$  동안  $D$ 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증가는 다음의 (식 1)과 같다.

$$dM_t = M_t h \frac{M - M_t}{M} dt \quad M_t < M \quad (\text{식 1})$$

$M_t$ 는 시간  $t$ 에서의 목적지  $D$ 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이다. 이를 (식 2)에 삽입하면  $t$ 가 무한대로 증가함에 따라  $M_t$ 는  $M$ 에 수렴함을 보여준다.

$$M_t = \frac{M}{1 + e^{-k(t-t_0)}} \quad (\text{식 2})$$

이 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  $D$ 의 시장 침투는 완전하게 된다. 또한 초기단계에서는 아주 소수 관광객들만이 관광지  $D$ 를 경험하기 때문에  $M_t$ 는 서서히 증가한다.

$$v_t = bM_t = \frac{bM}{1 + e^{-k(t-t_0)}} = \frac{m}{1 + e^{-k(t-t_0)}} \quad (\text{식 3})$$

$$v_t = a + bM_t \quad (\text{식 4})$$

그리고  $M_t$ 가 증가함에 따라서, D의 관광객들이 확산되기 때문에 일정시간 후의 인식은 보다 급격하게 확산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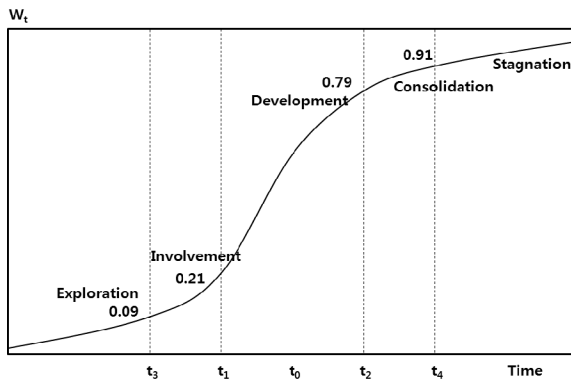
$$w_t = \frac{v_t}{m} = \frac{1}{1 + e^{-k(t-t_0)}} \quad 0 < w_t < 1 \quad (\text{식 5})$$

$$u_t = \frac{hMe^{-(t-t_0)}}{(1 + e^{-k(t-t_0)})^2} \quad (\text{식 6})$$

D에 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미칠 때에는, 목적지 D에 대한 정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M_t$ 가 M의 접근선에 다가가면 증가의 속도는 늦어져 마침내 확산은 멈춤으로써 시장은 포화상태가 된다.

이를 로지스틱 곡선에 적용하였을 때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발전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관광지 발전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관광객의 누적비율변화는 각 단계별로 0.09, 0.21, 0.79, 0.91, 0.91이상으로 5단계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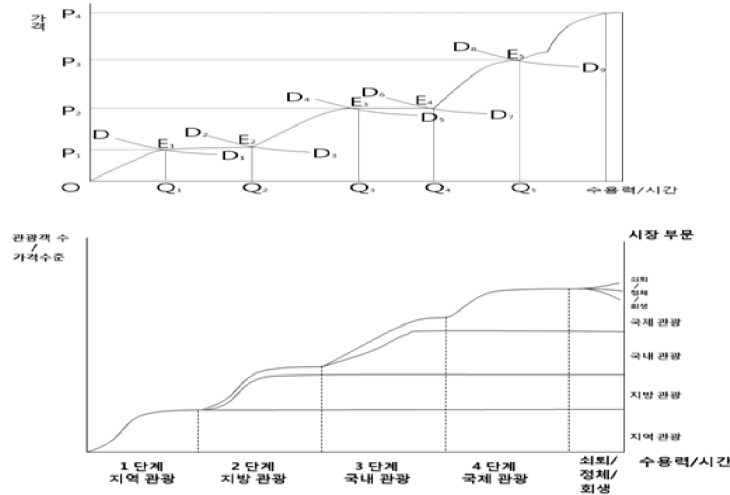
[그림 2] 관광지 발전단계에 따른 전체관광객의 누적비율



자료: Lundtorp and Wanhill(2001)에서 인용

한편 Prideaux(2000)는 가격, 수요, 공급, 균형의 시장기능 이론에 바탕을 두고 리조트 발전 스펙트럼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관광지 발전단계를 설명하였다. 관광지(리조트)는 수요와 공급의 추가적인 확대에 따라 시장의 새로운 균형점들이 만들어 지고 지역 → 지방 → 국내 → 국제의 단계별로 확장되는 발전 스펙트럼을 관광지 수명주기로 제시하였다.

[그림 3] 리조트 발전의 구조와 리조트 발전 스펙트럼



자료 : Prideaux(2000)에서 인용.

### III. 연구설계

#### 1. 연구모델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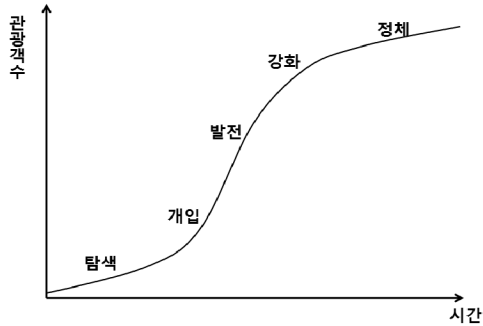
본 연구는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을 기본모델로 연구를 시작하여 실제 연구대상지역의 관광지 발전과정과 상정된 연구모델간에 갭이 발생할 경우 Lundtorp and Wanhill(2001)의 새로운 관광지 수명주기 추정방식과 Prideaux(2000)의 리조트 발전 스펙트럼 모델을 통합적으로 차용하여 해석하는 수정모델의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모델은 Butler(1980)의 수명주기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한 Lundtorp

and Wanhill(2001)의 방식을 따라 추정하게 된다.. 곡선은 주기를 이루고 마지막에는 포화지점에 이르게 됨을 가정한다.관광지 수명주기추정을 위한 종속변수는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점 t에서의 제주지역 방문관광객수 y를 나타내는 연구모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연구모델 추정식



$$y = \frac{C}{1 + e^{-(A+B*t)}}$$

연구모델은 Butler(1980)의 관광지 수명주기에서 제시되는 S자 형태의 곡선을 사용하게 되며 이처럼 장기추세 변동을 보여주는 로지스틱 곡선식은  $Y_t = \frac{1}{k + ab^t}$

형태로  $\frac{1}{k}$ 을 성장 상한치로 표시된다.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일정단계를 거쳐 쇠퇴에 이른다는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은 성장의 한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 한계점을 가진 추정 모델로서는 로지스틱 곡선식이 가장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곡선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모수추정을 통해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세선 확장을 통해 향후 성장한계점을 추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델에 대한 추정식을 세울 수 있고, Lundtorp and Wanhill(200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발전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 2. 연구모델의 추정방법

### 1) 로지스틱 곡선의 모수추정

로지스틱 곡선을 통해 과거 추세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확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점  $t$ 에서 제주지역 방문관광객수가  $y$ 라 하면, 로지스틱 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식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다. 모수추정을 통해 도출된 로지스틱 기본모형을 통계적으로 반복되는 알고리즘을 거치면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을 가진 검증과정과 추세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y = \frac{C}{1 + e^{-(A+B*t)}} \quad (\text{기본식 1})$$

### 2) 도함수를 통한 관광지 발전단계 추정

관광지 발전단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로지스틱 모델의 기본식을 이용, Lundtorp and Wanhill(2001)의 연구에서 제시된 도함수를 활용하면 발전단계를 구분 짓는  $t$ 값들을 구할 수 있다.

먼저 위의 (기본식 1)을 최대값으로 나누어서 새롭게 생성되는 함수  $w_t$  즉 (예제식 1)을 구한다. 이 함수는 앞에서 모델의 상한임계치로 나누었기 때문에 항상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w_t = \frac{1}{1 + e^{-(A+B*t)}} \quad , \quad (0 < w_t < 1) \quad (\text{예제식 1})$$

위의 (예제식 1)을 바탕으로 1차 미분한 도함수 식은 다음과 같다.

$$w_t' = h w_t(1 - w_t)$$

같은 방법으로 2차 도함수를 구하면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 로지스틱 곡선의 최대 변곡점인  $t_0$ 값을 구할 수 있다.

$$w_i'' = h_2 w_i(1-w_i)(1-2w_i)$$

이를 바탕으로  $w_i''=0$  만족하는  $w_i$ 를 구할 수 있으며,  $w_i = \frac{1}{2}$ 의 값을 (예제식 1)에 대입하면  $t_0$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3차 도함수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t_1$ 과  $t_2$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w_i''' = h_3 w_i(1-w_i)(1+6w_i^2-6w_i)$$

이를 바탕으로  $w_i'''=0$ 을 만족하는  $w_i = \frac{3+\sqrt{3}}{6}, \frac{3-\sqrt{3}}{6}$ 이므로 각각의 값을 (예제식 1)에 대입하면  $t_1, t_2$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차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w_i'''' = h_4 w_i(1-w_i)(2w_i-1)(-12w_i^2+12w_i-1)$$

$w_i''''=0$ 을 만족하는  $w_i = \frac{3+\sqrt{6}}{6}, \frac{3-\sqrt{6}}{6}$ 이므로, 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t_3$ 와  $t_4$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t_0 \sim t_4$ 의 각각의 값을 통해 관광지 수명주기의 발전단계를 추정할 수 있다.

### 3) 각 발전단계별 변곡점의 기울기 추정

본 연구의 기본적인 관광지 수명주기 모델은 하나의 관광지가 전체시장을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그 정보가 알려지면서 이들이 관광지로 유입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가 전체시장에 확산되는 과정을 속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속도는 로지스틱 추정곡선의 (기본식 1)을 미분하면 (기본식 2)와 같이 얻을 수 있다.

$$y' = \frac{-C \cdot B \cdot e^{(A+B \cdot t)}}{(1+e^{(A+B \cdot t)})^2} \quad (\text{기본식 2})$$

(기본식 2)에서 계수 A, B 그리고 C를 대입하면 시간 t에 대해서 각각의 미분계수(증가율)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미분계수가 곧 시장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이 시장에 유입되는 속도, 즉 특정시점의 관광객 증가속도를 나타낸다. 한편 본 연구의 모델검증과 발전단계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관광지 제주도의 방문관광객수 투입자료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 현황(1962-2009)

(단위:명)

연도	관광객계	내국인	외국인	연도	관광객계	내국인	외국인
1962	14,707	14,340	367	1986	1,492,308	1,376,555	115,753
1963	22,650	22,387	263	1987	1,758,461	1,606,072	152,389
1964	28,382	27,153	1,220	1988	2,000,495	1,842,691	157,804
1965	75,981	74,407	1,574	1989	2,642,613	2,475,361	167,252
1966	108,252	106,291	1,961	1990	2,992,096	2,757,023	235,073
1967	114,536	111,419	3,117	1991	3,204,614	2,929,243	275,371
1968	135,228	131,482	3,746	1992	3,421,708	3,179,132	242,576
1969	186,452	183,315	3,137	1993	3,463,908	3,186,549	277,359
1970	244,847	238,354	6,493	1994	3,692,548	3,470,106	222,442
1971	308,008	294,186	13,822	1995	3,996,844	3,754,960	241,884
1972	284,868	272,390	12,478	1996	4,143,955	3,934,702	209,253
1973	360,636	340,416	20,220	1997	4,363,192	4,178,789	184,403
1974	318,390	292,821	25,569	1998	3,291,116	3,067,415	223,701
1975	359,469	331,472	27,997	1999	3,666,836	3,419,871	246,965
1976	369,182	348,918	20,264	2000	4,110,934	3,822,509	288,425
1977	500,349	467,055	33,294	2001	4,197,574	3,907,524	290,050
1978	651,648	612,392	39,256	2002	4,515,515	4,226,019	289,496
1979	744,447	712,947	31,500	2003	4,913,390	4,692,373	221,017
1980	669,369	648,821	20,548	2004	4,932,512	4,603,297	329,215
1981	724,240	682,415	41,825	2005	5,020,275	4,641,552	378,723
1982	860,334	815,831	44,503	2006	5,312,998	4,852,638	460,360
1983	1,025,026	980,028	44,998	2007	5,429,223	4,887,949	541,274
1984	1,217,243	1,168,425	48,818	2008	5,822,017	5,281,501	540,516
1985	1,322,702	1,249,026	73,676	2009	6,523,938	5,891,984	632,35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2010), 2008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고하여 작성함.

### IV. 분석결과

#### 1. 연구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 연구모델은 1962년부터 2009년까지를 주기로 하는 관광지 수명주기(DLC)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

연구모델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비선형 회귀분석은 반복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 초기값을 잘 주면 반복횟수가 작아지나 그렇지 못하면 반복횟수가 과다히 많아져 경우에 따라서 최적의 해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박성현 외 2인, 2004).

연구설계에서 제시된 연구모델식을 이용하여 모수의 초기값을 구할 수 있으며, 1962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지역을 방문한 최대 관광객 수는 652만명이므로 C의 초기값은 660만명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곡선추정을 위한 모수의 초기값을 구하면 A=6.1042, B=-0.433, C=660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반복시행의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또한 비선형 회귀분석에 따른 분산분석표에서는 모델의 적합도인 결정계수(R<sup>2</sup>)가 0.98임을 알 수 있다.

<표 2> 연구모델의 반복시행에 따른 모수 추정치의 변화와 비선형 회귀 분산분석표

회수	잔차제곱합	A	B	C	변동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1	2755258	1.28	-0.00	386.13	Regression(회귀)	3	4,152,837	1,384,279
2	461183	4.70	-0.24	563.60	Residual(잔차)	45	48,339	1,074
3	90550	4.17	-0.22	530.75	Uncorrected Total	48	4,201,176	
4	48445	4.54	-0.19	598.68	(수정안된 총합)			
5	48340	4.47	-0.22	600.61	Corrected Total	47	1,879,911	
8	48339	4.47	-0.22	600.79	(수정된 총합)			
					결정계수(R squared)	= .98		

주) 8차 도함수(17번째 모델)까지 자동 반복수행, 잔차제곱합이 1.000E-08임으로 반복시행 중단되었음.

또한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정된 회귀모수에 관한 요약결과는 <표 3>과 같다. 최종적으로 추정된 모수는 A=4.476, B=-0.148, C=600.79임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모델의 모수 추정치와 95%신뢰구간 허용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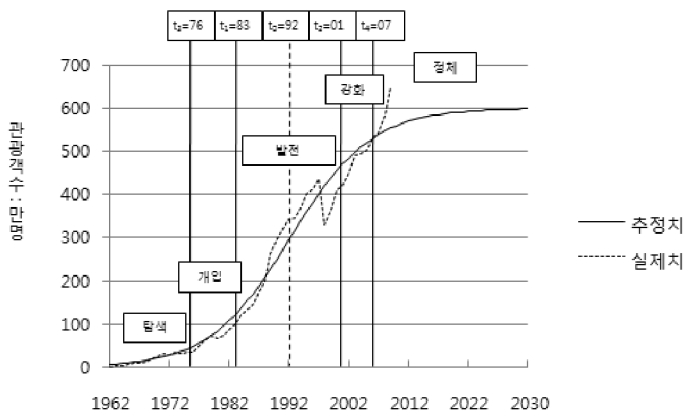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하한	상한
A	4.476	.282	3.908	5.044
B	-.148	.0123	-.173	-.123
C	600.7	28.81	542.7	658.8

따라서 이 추정치를 연구모델식에 대입하면 98%의 곡선모델 적합도를 가진 다음의 최종적인 모델식과 [그림 5]와 같은 발전단계를 추정할 수 있다.

$$y = \frac{600}{1 + e^{(4.476 - 0.148t)}}$$

그러나 연구모델의 추정과정에서 Butler(1980)의 이론에 비취볼 때 강화단계인 2001년과 2006년 5~6년간 관광객이 120만명 증가에 그친 반면, 정체단계로 추정된 2007년과 2009년 불과 3년 사이에 11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기된 이론적 연구모델이 실제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연구모델의 수명주기와 각 단계별 구분(1962-2030)



또한 <표 3>에서도 나타나듯 48년간의 제주지역 관광객 유입량을 토대로 로지스틱 곡선모델을 구축하였을 때, C=600에서 수렴하는 데 이 수치는 곧 제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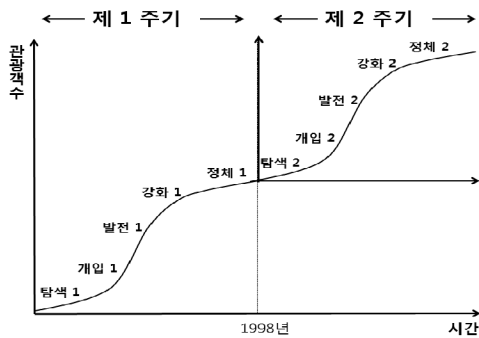
관광시장의 최적 포화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2009년 이미 관광객 수가 652만명에 도달, 포화상태를 넘어서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연구모델로는 제주도의 관광지 발전단계를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관광지 발전단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정모델을 추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2. 수정모델의 탐색

수정모델은 Lundtorp and Wanhill(2001)의 관광지 발전단계 추정방식과 Prideaux(2000)의 리조트 발전 스펙트럼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탐색·추적되었다. Prideaux(2000)에 의하면 관광지 수명주기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설명될 수 없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균형점들이 생겨나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개의 시장이 추가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수명주기 곡선은 하나의 주기가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그림 6]에서처럼 새로운 주기가 다시 형성되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6] 수정모델 추정식



$$y = \frac{C}{1 + e^{(A+B * t_1)}} + \frac{F}{1 + e^{(D+E * t_2)}} \quad (\text{수정모델 추정식})$$

관광지 수명주기가 2단계로 진화하는 새로운 수정모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제1주기와 제2주기에 대한 각각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분석과정과 관련수식은 앞서 연구모델 추정에서 제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먼저 제1주기(1962-1998)를 통해 산출된 곡선추정을 위한 초기 값은 A=5.697, B=0.433, C=440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반복시행의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또한 비선형 회귀분석에 따른 분산분석표에서는 모델의 적합도인 결정계수(R<sup>2</sup>)가 0.98임을 알 수 있다.

<표 4> 제1주기의 반복시행에 따른 모수 추정치의 변화와 비선형 회귀 분산분석표

회수	잔차제곱합	A	B	C	변동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1	1064571	1.08	.01	286.46	Regression(회귀)	3	1422596	474198
					Residual(잔차)	34	16667	490.21
2	271380	2.48	-.18	259.60	Uncorrected Total	37	1439263.66	
					(수정안된 총합)			
3	167586	3.33	-.14	300.55	Corrected Total	36	733232.78	
					(수정된 총합)			
13	16667	5.77	-.22	464.40	<b>결정계수(R squared)</b>		<b>= .98</b>	

주) 13차 도함수(27번째 모델)까지 자동 반복수행, 잔차제곱합이 1.000E-08임으로 반복시행이 중단됨

<표 5> 제1주기의 모수 추정치와 95%신뢰구간 허용값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하한	상한
A	5.778	.427	4.909	6.647
B	-.220	.021	-.263	-.177
C	464.40	29.23	404.99	523.81

위의 <표 5>에서 최종적으로 추정된 모수는 A=5.778, B=0.22, C=464임을 알 수 있고, 수명주기 제1주기의 최종적인 모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y = \frac{464}{1 + e^{(5.778 - 0.22t)}} \quad (\text{제1주기 추정식})$$

따라서 1962년부터 1998년까지 총 37년 간의 제주지역 관광객 유입량을 토대로 로지스틱 곡선모델을 구축하였을 때, 수정모델에서 제1주기 부분은 관광객수가 464만명을 포화지점으로 한 로지스틱 곡선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2주기(1999-2009)에 대한 초기값은 1999년도의 관광객 수치에 해당된다. 그러나 1999년도의 관광객 수치는 1주기 끝나고 이루어진 수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 관광객수 - 1998년도 관광객수)를 1999년도의 관광객 수치라고 가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의 수치는 (2000년도의 관광객수 - 1998년도의 관광

객수)가 된다. 이를 통해 산출된 곡선추정을 위한 초기 값은 A=2.051, B=-0.944, C=330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반복시행의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또한 비선형 회귀분석에 따른 분산분석표에서는 모델 적합도인 결정계수(R<sup>2</sup>)가 0.95임을 알 수 있다.

<표 6> 제2주기의 반복시행에 따른 모수 추정치의 변화와 비선형 회귀 분산분석표

회수	잔차제곱합	A	B	C	변동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1	11441	1.16	-.38	242.91	Regression(회귀)	3	366393	122131.0259
2	6304	1.50	-.33	294.21	Residual(잔차)	8	3268	408.54872
3	4923	1.56	-.33	315.58	Uncorrected Total	11	369661.46750	
20	3268	2.52	-.18	919.73	(수정안된 총합)			
21	3268	2.52	-.18	920.01	Corrected Total	10	67111.62809	
					(수정된 총합)			
					결정계수(R squared)		= .95	

주) 21차 도함수(47번째 모델)까지 자동 반복수행, 잔차제곱합이 1.000E-08임으로 반복시행 중단됨.

<표 7> 제2주기의 모수 추정치와 95%신뢰구간 허용값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하한	상한
A	2.523	1.478	-.884	5.932
B	-.181	.071	-.346	-.016
C	920.01	1368.32	-2235.36	4075.38

위의 표 <표 7>에서 최종적으로 추정된 모수는 A=2.523, B=0.181, C=920임을 알 수 있고, 수명주기 제2주기의 최종적인 모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y = \frac{920}{1 + e^{(2.523 - 0.181)t}} \quad (\text{제2주기 추정식})$$

따라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11년 간의 제주지역 관광객 유입량을 토대로 로지스틱 곡선모델을 구축하였을 때, C=920만명에서 로지스틱 곡선은 수렴한다.



### 3. 수정모델에 따른 관광지 수명주기(DLC) 발전단계 추정

제주지역의 수명주기 추정을 통한 관광지 발전단계는 <표 8>과 [그림 7]과 같이 연속적으로 상승반복되는 추세형의 수정모델로 설명된다.

$$y = \frac{464}{1 + e^{(5.778 - 0.22t)}} + \frac{920}{1 + e^{(2.523 - 0.181t)}} \quad (\text{수정모델 추정식})$$

수정모델의 제1주기는 1962년부터 1998년까지이며 1998년 이후는 정체 단계로 해석된다. 1988년은 IMF 외환위기 충격이 있었던 해로 이 시점에 수명주기상 제1주기의 정체단계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다시 새로운 2주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Hovinen(1982)과 Meyer-Arendt(1985)에 의하면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쇼크, 석유파동이나 유행병,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 충격적인 환경요인으로 관광객수가 크게 감소된 시기가 정체단계에 해당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1주기 로지스틱 곡선에서 가장 큰 변곡점인  $t_0$ 는 1988년으로 추정되며, 이를 기점으로 좌우 해당구간인  $t_1$ ,  $t_2$  즉 1983년부터 1993년까지가 바로 발전단계(development)에 해당된다. 또한  $t_3$ 는 1977년까지로 이는 탐색단계(exploration)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는 개입단계(invovement)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t_4$ 는 1998년으로 추정되며 그 이전인 1994년에서 1997년까지는 강화단계(consolidation), 그 이후인 1998년부터는 정체단계(Stagnation)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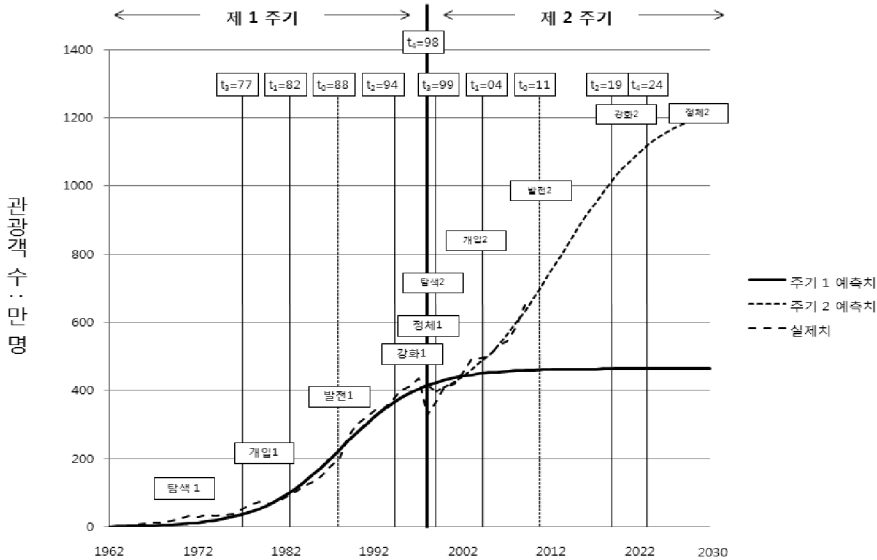
다음으로 제2주기는 본 로지스틱 곡선에서 가장 큰 변곡점인  $t_0$ 은 2011년으로 추정되며, 이를 기점으로 좌우 해당구간인  $t_1$ ,  $t_2$  즉 2005년부터 2018년까지가 바로 발전단계(development)에 해당된다. 현재 제주지역은 관광지 발전단계상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_3$ 는 1999년으로 추정되어 여기까지는 탐색단계(exploration)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는 개입단계(invovement)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t_4$ 는 2024년으로 추정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가 강화단계(consolidation), 2024년부터는 정체단계(Stagnation)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는 1998년이 제1주기 정체단계의 시작이자, 제2주기의 시작지점으로 분석된다.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DLC) 이론에서 볼 때 정체단계를 거친 후 Prideaux(2000) 모델에서 말하는 새로운 관광시장의 형성으로 관광지가 회생(rejuvenization)하여 두 번째의 관광지 발전단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수정모델에 의한 발전단계 구분

주기	구분	t값 추정결과	해당기간	비고
제 1 주기	탐색단계(exploration)	$t_3=15.8466$ (1977년)	~1977년	-
	개입단계(invovement)	$t_1=20.2806$ (1982년)	1978년~1982년	-
	발전단계(development)	$t_0=26.2668$ (1988년)	1983년~1993년	-
	강화단계(consolidation)	$t_2=32.2529$ (1994년)	1994년~1997년	-
	정체단계(stagnation)	$t_4=36.6869$ (1998년)	1998년~	-
제 2 주기	탐색단계(exploration)	$t_3=1.2738$ (1999년)	~1999년	-
	개입단계(invovement)	$t_1=6.6632$ (2004년)	2000년~2004년	-
	발전단계(development)	$t_0=13.9392$ (2011년)	2005년~2018년	현재단계
	강화단계(consolidation)	$t_2=21.2152$ (2019년)	2019년~2023년	-
	정체단계(stagnation)	$t_4=26.6045$ (2024년)	2024년~	-

[그림 7] 수정모델의 수명주기와 각 단계별 구분(1962-2030)



지금까지 진행된 모델의 검증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경우 수정모델이 관광지 발전단계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정모델

을 이용한 수요예측 결과와 실제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 수치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로지스틱 곡선추정에 의한 향후 연도별 실제치와 예측치

연도	변환연도	실제방문객	예측방문객	연도	변환연도	실제방문객	예측방문객
1962	0	14,707	14,316	2005	43	5,020,275	5,057,611
1970	8	244,847	81,994	2006	44	5,312,998	5,330,418
1980	18	669,369	648,088	2007	45	5,429,223	5,632,087
1990	28	2,992,096	2,757,809	2008	46	5,822,017	5,961,739
1991	29	3,204,614	2,997,968	2009	47	6,523,938	6,317,330
1992	30	3,421,708	3,223,226	2010	48	-	6,695,581
1993	31	3,463,908	3,430,054	2011	49	-	7,092,003
1994	32	3,692,548	3,616,278	2012	50	-	7,501,055
1995	33	3,996,844	3,781,018	2013	51	-	7,916,416
1996	34	4,143,955	3,924,492	2014	52	-	8,331,364
1997	35	4,363,192	4,047,756	2015	53	-	8,739,206
1998	36	3,291,116	4,152,423	2016	54	-	9,133,697
1999	37	3,666,836	3,974,321	2017	55	-	9,509,410
2000	38	4,110,934	4,097,991	2018	56	-	9,861,999
2001	39	4,197,574	4,241,548	2019	57	-	10,188,334
2002	40	4,515,515	4,407,249	2020	58	-	10,486,520
2003	41	4,913,393	4,597,266	2021	59	-	10,755,809
2004	42	4,932,512	4,813,540	2022	60	-	10,996,437

## V. 결 론

### 1.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1962년부터 2009년까지 47년간의 방문관광객수를 투입변수로하여 제주지역의 관광지 수명주기 모델을 검증한 결과 제주지역은 1962년 시작된 관광지 발전과정이 1998년을 기준점으로 제1주기 정체단계가 관광객수 660만명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다시 이를 시작점으로 하여 1999년부터 제2주기 개입단계가 출발, 발달과 강화단계를 거쳐 2023년 1,100만명 수준의 제2차 정체단계에 이르는 새로운 수명주기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제2주기 수명주기는 적절한 관광지 개발 및 경영관리에 의한 수요-공급 확대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에 기반한 연구모델이 논리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현실부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수명주기 이론상 예측치와 실제증정치의 갭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수정모델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결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Prideaux(2000)의 리조트 발전 스펙트럼 모델에 근거한 다주기(多週期) 발전모델을 수정모델로 Lundtorp and Wanhill(2001)의 수명주기 추정방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도입에서부터 개발(재개발)과 성장단계를 거쳐 정체에 이르는 수명주기 곡선의 기울기는 편차를 보일 수 있으나 제주지역의 관광지 수명주기가 2주기에 걸친 발전단계를 보이고 있는(보일) 것으로 추적(예측)되어 이론과 현실이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명주기는 자연발생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수명주기 단계별로 관광지 지속가능성 관리에 토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다(강숙영, 2010. 오수경, 2010). 제주지역 관광지 수명주기에 따른 각 발전 단계에 따른 관광개발의 대응상황은 다음 <표 10>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지역 관광지 개발 및 경영관리를 위한 각 단계에 부응하는 정책의 방향성

---

주) 본 관광지 수명주기 추정모델에 의하면 2010년 제주방문객이 669만명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제주방문객은 757만명으로 나타나 추정치를 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제주올레'라는 트레킹(도보여행)이 국민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 올레걷기라는 새로운 매력의 등장으로 제주도를 추가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은 100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들을 시사받을 수 있다.

<표 10> 제주지역의 관광지 수명주기(DLC)에 따른 제주관광개발의 대응성

주기	관광개발 현황	관광개발정책 주요내용
제1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컨트리클럽(18홀) 개장</li> <li>· 제주관광호텔(객실수: 30) 개관</li> <li>· 제주 민속박물관 개관</li> <li>· 제1·2횡단도로 개설 및 포장</li> <li>· 제1한라관광도로 개설</li> <li>· 동부축산관광도로 개설</li> <li>· 용연, 만장굴, 안덕계곡, 정방폭포, 천제연 등 5개를 관광지구 지정</li> <li>· 중문관광단지 개발</li> <li>·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착공</li> <li>· 제주월드컵경기장 착공</li> <li>· 관광지 개발은 혼합방식 채택, 단지 및 지구의 지정은 3개 단지 10개 지구로 축소하였다가 이후3개단지 20개지구로 확대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과 1차 산업의 병행발전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li> <li>· 부존자원개발을 통한지역격차 시정과 산업·관광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관광자원의 적극 개발</li> <li>· 중문관광단지, 주변 관광지구, 산악·해안·동굴·문화관광 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및 공항, 항만의 확장</li> <li>· 간선도로의 개설·포장·확장·용수 및 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 및 지역 생산기반 확충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소득원의 다변화</li> <li>· 3개 관광단지 27개 지구 개발 및 1차 계획의 지표 조정, 관광단지·지구 재조정 (3개단지, 10개지구)</li> <li>· 지구 지정방식을 기초로 개발허가방식의 일부 수용</li> <li>·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서부지역 관광지구 추가지정</li> <li>· 개발 면적의 조정과 확대 및 각종 관광·위락시설의 확충</li> <li>· 회의산업의 유치 등을 통한 국내 및 국제관광지의 기반조성</li> <li>· 환경친화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건설</li> <li>· 첨단산업 육성으로 자립경제기반 구축</li> <li>·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동북아 관광 중심축으로 부상</li> </ul>
제2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면세점 개점, 제주관광공사 출범, 제주화산선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등재</li> <li>· 7대 선도프로젝트에서 핵심 및 전략 프로젝트로 변경하여 추진</li> <li>· 2009년 기준 40개의 관광단지 및 지구가 추진되어, 3개단지 20개지구가 지정, 17개 사업 개별 허가되고, 제주 투자진흥 지구 15개 사업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li> <li>· 동북아의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li> <li>·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자립형 도시</li> <li>· 지속가능한 관광·휴양·지식중심도시</li> <li>·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제도시</li> <li>· 상생과 번영의 균형발전도시,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li> <li>· 관광·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li> <li>· 6차산업화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li> </ul>
	<p><b>제 1 주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건설종합계획에 의거하여 관광과 1차 산업의 병행발전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개발정책이 시행되었고, 제1·2횡단도로 등의 사회기반 시설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짐</li> <li>·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중문관광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이 단계별로 추진됨</li> <li>· 제1차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한 3개단지 27개 관광지구의 관광개발정책이 주요 관광개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개발현황으로는 중문, 성산, 표선의 3개 관광 단지를 비롯한 27개 관광지구 개발과 관광시설 등의 관광개발 사업에 2,496억원이 투자됨</li> </ul>	<p><b>제 2주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및 종합 계획에 의거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 동북아 중심도시건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개발정책이 이뤄졌으며, 관광개발현황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 내국인 면세점 개점 등이 이뤄짐</li> <li>·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과 제주특별광역 경제권발전 계획에 의거한 관광개발정책이 이뤄졌다. 이 시기의 관광개발 현황은 제주관광공사 출범, 7대선도 프로젝트에서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 로의 변경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지정, 17개 사업이 개별 허가, 제주투자진흥지구 15개 사업 지정 등으로 이뤄짐</li> </ul>

## 2. 연구의 한계와 연구방향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관광지 수명주기 추정이 제주지역 방문 전체 관광객 수의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져, 관광지 수용력이나 수요와 공급의 측면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객 통계치 외에도 관광지의 수용력이나 수요와 공급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연도 설정에 있어 더욱 철저한 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관광지 수명주기를 판단하기 위해 Butler(1980), Lundtrop and Wanhill(2001), Prideaux(2000)의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관광지 수명주기를 제1주기와 제2주기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Hovinen and Meyer-Arendt(198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IMF 금융위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시기를 정체단계로 해석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시도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제주관광의 공급 측면에서 단위 관광지(자원과 시설)에 대한 수명주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주지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위 관광지에 대한 수명주기가 추정되어 이들을 합산하는 수명주기를 도출, 전체 수명주기와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강숙영(2010). "제주지역 외래관광객 유치증대전략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14(4). pp.1-26.

김규현(1990). "관광지 수명주기 개념적응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 pp.27-36.

김사영(1993).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제주도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지리학』. 3. pp.85-104.

박성현·조신섭·김성수(2004). 『한글 SPSS』. 서울: 한나래.

- 박양춘·최정수(2002). "테마파크 에버랜드의 수명주기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1). pp.20-39.
- 송재호·허향진·강재정(2004). "제주지역 관광객 추계조사 연구". 『관광경영연구』. 8(1). pp.125-144.
- 오상훈(1992). "관광자의 성격과 관광목적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오수경(2010). "장소마케팅을 통한 서울시 도시관광 진흥방안". 『관광경영연구』. 13(4). pp.161-181.
- 유승돈(1987). "관광지 수명주기의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 경영논집』. 1(1). pp.7-16.
- 이경자(1998). "한국온천관광목적지의 수명주기". 박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영희(2000).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수안보온천의 활성화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35(3). pp.473-488.
- 장은영(2000). "관광지 수명주기 연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garwal, S. J(1994). The resort cycle revisited: implications for resort. In Cooper, C.P. and Lockwood, A. (eds). *Progress in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Management*. 5. pp.194-198.
- Benedetto, C. A. D(1993). Tourism area life cycle extens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3). pp.557-570.
- Bianchi, R(1994). Tourism Development and Resort Dynamics: an Alternative Approach. *Progress in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Management*. 5. pp.181-193.
- Butler, R. W(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1). pp.5-12.
- Buhalis, D(2000). Marketing the competitive destination of the future. *Tourism Management*. 21(1). pp.97-116.
- Choy, D. J. L(1992). Life cycle models for pacific island destin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3). pp.377-398.
- Cooper, C(1989). *Tourist Product Life Cycle*. In *Tourism Marketing and Management*

- Handbook, edited by S. F. Witt and L. Moutinho. Hemel Hempstead, UK: Prentice Hall. pp.577-581.
- Cooper, C(1992). The life cycle concept and strategic planning for coastal resort. *Built Environment*. 18(1). pp.57-66.
- Cooper, C. and Jackson, S(1989). Destination life cycle: The Isle of Man case study.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3). pp.377-398.
- Crompton, J. L. and Henarling, D. M(1987). Some suggested implication of the product life cycle for public recreation and park agency managers. *Leisure Science*. 1(3). pp.295-296.
- Douglas, N(1997). Applying the Life Cycle method to Melanes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1). pp.1-22.
- Getz, D(1992). Tourism planning and destination life 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pp.752-770.
- Hart, C. W., Casserly, G. and Lawless, M. J(1984). The Product Life Cycle: How Useful?. *The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24(3). pp.54-63.
- Haywood, K. M(1986). Can the Tourist-Area Life Cycle be Made Operational?. *Tourism Management*. 7. pp.154-167.
- Hovinen. G. R(1982). Visitor Cycle: Outlook for tourism in Lancaster Coun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9(4). pp.565-583.
- Johnston, C. S(2001). Shoring the foundation of the destination life cycle model. *Tourism geographies* 3(1). pp.2-28.
- Luntorp, S. and Wanhill, S(2001). The Resort Life Cycle Theor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4). pp.947-964.
- Meyer-Arendt. K. J(1985). The Grand Isle, louisiana resort 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3). pp.449-465.
- Opperman, M(1995). Travel life 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3). pp.535-552.
- Prideaux, B(2000). The resort development spectrum - a new approach to modeling resort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1(3). pp.225-240.



- Prosser, G(1995). Tourism destination life cycles: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National Tourism Research Conference*. Melbourne.
- Tooman, A. L(1997). Applications of the Life Cycle Model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1). pp.214-234.

2011년 8월 30일 원고접수. 2011년 9월 28일 1차수정본 접수.  
2011년 10월 21일 최종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 畢.